문화광장

대화, 작품 감상의 모든 것

김 연 주
문화공간 양 기획자

시라토니 겐지는 시각장애인이다. 그중에서도 전맹(全盲)이다. 그러니까 빛을 전혀 감지하지 못해서 앞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는 말이다. 그런데 사진을 찍고, 자주 미술관에 가서 작품을 감상한다. 시라토니 겐지의 작품 감상은 함께한 이들에게 건네는 질문으로 시작한다. "무엇이 보이는지 말해주세요." 질문받은 사람들은 우선 저마다 자신이 그림에서 본 형태, 색채 등을 말한다. 그러고는 이와 같은 단순한 정보에서 더 나아가 자신이 생각하는 작품 속 인물의 감정 등도 덧붙인다.

어쩌면 이때부터 진정한 의미의 작품 감상이 시작된다고 여겨진다. 같이 간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도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작품을 혼자 보거나 비시각장애인끼리 봤을 때보다 주의 깊게 작품을 관찰하고 분석하며 해석하기 때문이다. 즉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시각과 태도로 작품을 마주하게 된다. 이런 이유로 사람들은 시라토니 겐지와 함께하는 전시 관람을 무척 즐긴다고 한다. 심지어 매번 봐왔던 작품이었는데도 미술관 직원이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부분을 깨달은 적도 있었다. 시라토니 켄지에게 작품을 설명해 주면서 미술관 직원은 자신이 호수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사실은 들판이었다는 점을 발견했다. 비시각장애인이 눈이 보인다고 해서 전부를 보는 아니다. 일부만 보거나 잘못 보거나 심지어 안 보기도 한다. 그렇다면 작품을 감상하기 위해서 시각장애인만이 설명해 줄 누군가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 비장애인도 함께 이야기 나눌 다른 사람이 필요하다.

관람객을 몰고 다니는 인기 도슨트를 모시기 위해 미술관이나 화랑이 무척 애쓰는 요즘 시라토니 겐지의 이야기는 작품을 본다는 행위는 과연 무엇인가를 질문하게 했다. 물론 도슨트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다. 관람객의 작품 이해를 도울 뿐만 아니라 작가와 작품에 흥미를 갖게 한다. 실제로 미술 향유층을 늘리는 역할을 톡톡히 해왔다. 미술 관련 유튜브 유명 채널도 마찬가지다. 미술관이나 화랑에서 많은 관람객을 보면서 이들의 영향력을 실제로 체감한다. 다만 누군가에게 즐겁게 듣는 이야기가 작품을 이해하기 위한 바탕은 될 수 있으나, 작품 감상의 모든 것은 아니다. 작품 감상에서는 지식을 넘어가는 지점이 필요하다. 감상은 눈과 귀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생각으로까지 가야 한다.

전시를 기획하는 일을 해서 인지 나는 누구보다 전시를 보고자 하는 욕망이 크다. 비엔날레에 가면 모든 전시 장소에 가야 하고, 모든 작품을 봐야 마음이 놓인다. 그런데 과연 나는 작품을 감상하고 있었던 것일까? 감상은커녕 지금까지 작품을 단 한 점도 제대로 보지 못했던 것만 같다. 올해는 제주뿐만 아니라 광주, 부산에서도 비엔날레가 열린다. 이번에는 한 작품만이라도 그 앞에서 함께 전시를 보러 간 사람들과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누며 혼자 봤을 때 결코 알지 못했을 것들을 깨달아가는 시간을 가져봐야겠다.

사설

첫 도정·교육행정 질문 '맹탕'돼선 안 된다

제주도의회 도의원들의 시간이 돌아왔다. 제13대 도의회 출범 이후 첫 정례회가 9월2일부터 22일까지 21일간의 일정으로 열리고 있어서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도정·교육행정 질문을 비롯해 2025회계연도 제주도 및 제주도교육청 결산·예비비 승인과 각종 조례안 심사가 이뤄진다.

도의회 정례회는 새롭게 출범한 도정과 도교육청의 정책 기조를 가늠할 수 있는 자리다. 그만큼 의원들의 전문성과 의정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시험대이기도 하다. 정책과 지역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실질적인 개선책을 제시할지 주목된다. 도정질문에서는 국제정세 불안 등으로 지속되고 있는 민생경제의 어려움과 최근 잇따르는 민생치안 우려에 대한 제주도정 차원의 대응 방안이 비중 있게 다뤄질 전망이다. 교육행정질문에서는 도내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학생 자살 시도와 관련해 교육당국의 대응체계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또 이번 정례회에서는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의 2025회계연도 결산 심사도 진행된다. 앞서 도의회는 제주도 및 행정시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를 통해 31건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행정 개선을 주문했다.

도의원들은 정례회를 대비해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대해 제대로 숙지하고 문제점은 없는지, 개선책은 무엇인지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송곳 같은 질문과 정책 대안 제시를 통해 집행부의 제도 개선 약속을 이끌어내야 하는 막중한 책무가 있다.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민생을 챙기는 생산적인 정례회가 돼야 한다.

상급종합병원 지정만 되면 만사형통 아니다

올해 연말이면 제주권역 첫 상급종합병원 지정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권역과 묶여 있는 권역이 분리됐고 마지막 실타래라고 할 수 있는 제주권역 소요병상 수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제주지역 소요병상 수 기준을 개선해 달라는 건의를 수용하기로 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산정한 제주권역 상급종합병원의 병상 수는 545개로 현재 제주대병원 655개와 제주한라병원의 550개를 훨씬 밑도는 수치로 평가원의 병상 수가 기준으로 확정될 경우 제주에서는 상급종합병원이 선정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제 연말이면 동네의원급인 1차 병원과 일반 종합병원급인 2차 병원, 중증질환자를 전담하는 3차 병원, 상급종합병원 등으로 이어지는 단계별 진료체계가 완성되게 된다. 그동안 제주에는 1·2차 병원만 있고 3차 의료기관이 없어 해마다 수많은 도민이 '원정 진료'를 떠나야 했다. 2024년 기준 타 지역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도민은 14만5054명으로, 이들이 지출한 원정 진료비는 2204억원에 달했다. 의료계는 순수 진료비 외에 항공료와 숙박비 등 부대 경비를 다 포함하면 원정 진료에 소요되는 비용이 연간 3000억원 이상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렇다고 상급종합병원 지정이 그동안의 원정진료를 멈추게 할 수 없다. 지역 완결형 의료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다른 지역 상급종합병원에 걸맞은 의료 수준이 뒷받침돼야 하고 투자도 뒤따라야 한다. 그리고 도내 2차 종합병원이 3차 의료기관으로 전환됨에 따라 2차 병원의 문턱이 높아지는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열린마당

전국장애인체전·전국체전의 성공을 다짐하며

오 재 환
서귀포지역경찰대 관광교통팀장

9월과 10월, 제주 서귀포에서 대한민국 스포츠의 최대 축제인 '제46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와 '제107회 전국체육대회'가 잇따라 개최된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선수단과 방문객들이 제주를 찾아 열정과 감동의 순간을 함께할 예정이다.

대규모 행사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은 '안전'과 '쾌적한 환경'이다. 개회식이 열리는 서귀포 월드컵경기장을 비롯해 관내 경기장 주변은 차량과 인파로 혼잡이 예상돼 체계적인 교통안전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효율적인 교통 관리를 위해 경기장 주변을 1선·2선·3선 지역으로 구분해 단계별 차량 이동 동선을 통제하고 완충 구역을 확보할 계획이다. 색상별 등배너를 활용하고, 야간 관람객 안전을 위해 횡단보도 관리 자원봉사자들에게도 야간용 등배너를 지급할 예정이다. 교통안내 표지판 설치와 가변차로 운용 등 수송 대책도 추진한다.

9월 장애인체육대회 기간에는 무장애 동선 확보와 전용 주차 공간 체계화로 이동 불편을 최소화한다. 유관기관과의 신속 대응 체계 및 자원봉사자들과의 협력을 통해 현장 위험 요소도 예방할 것이다.

이번 체전은 제주의 따뜻한 인심과 선진 질서 의식을 알리는 무대가 될 것이다. 방문객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개회식부터 마지막 환송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다.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뉴스-in

도민 고충은 세심·민원 현장은 든든

고충민원 역량강화 교육

○…제주특별자치도는 31일 도청 탐라홀에서 도·행정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고충민원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

이번 교육은 민원인의 입장에서 문제를 살피고 적절하게 소통하는 한편, 담당 공무원의 현장 대응 역량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제주120만덕콜센터 오선애 센터장이 '고충민원 응대 및 처리 요령'을 주제로 사례 중심의 교육을 진행.

이날 위성곤 지사는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들을 격려하고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과 필요한 지원방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며 "이들이 조직 안에서 존중받고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처우 개선과 지원방안을 함께 살펴보겠다"고 강조. 오소범기자

제주시 주민 소통간담회 시동

○…이상봉 제주시장이 취임에 맞춰 26개 읍면동의 주요 현안을 신속히 파악하고, 제주시정의 방향을 주민들과 공유하는 한편 현장의 목소리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찾아가는 주민 소통간담회'를 추진.

9월 1일 우도면을 시작으로 오는 10월 2일까지 지역을 순회하며 주민과의 소통을 한층 강화하고 지역별 현안 해결과 시민 중심의 시정을 실현하는 데 더욱 속도를 낼 계획.

이 시장은 "행정의 출발점도, 최종 목적지도 언제나 시민이어야 한다"며 "시장실에 머물기보다 시민의 삶터와 일상 속으로 한발 먼저 달려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의 변화를 차근차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 백금탁기자

해산 및 채권제출 공고(1차)

당 회사는 2026 년 8월 26일 주주전원서면결의로서 해산을 결의하고 2026년 8월 26일자로 등기를 완료하였사오니 당사에 대하여 채권이 있으신 분은 이 공고게재익일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채권액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간내에 제출이 없으면 청산에서 제외됨을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일

주식회사 성혁하우징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원당로 40, 2층(삼양일동)
청산인 강 일 순

제주 백도라지 분말
관심과 사랑 주심에 이룬 성과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약백도라지 분말 100% 목성콜
현대백화점, 농협 하나로마트, 경제통상진흥원판매장 판매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 명인 / 2009 백도라지 명인
전화 064-783-8987, 010-5755-8987, 상담 010-2691-9316
홈페이지 : http://www.baekdoraji.com
주산지 선흘2리 용암동굴계 거문오름 일대지역
한기림JK약백도라지연구소

묘지 후손 찾기
토지 대장에서 주소 없이 이름만 등록되어 있는 미등기 토지에 대하여 상속자(주인)을 찾아드립니다.
후손 찾기 한달 이내 가능합니다.
ㅇ 지목에 관계없이 모든 토지 후손 찾아드립니다.
ㅇ 등기는 되어 있으나 주소가 바뀌어 소유자를 못찾는 경우
ㅇ 소유권 이전 분쟁시 승소 가능 자료를 찾아드립니다.
묘지전문 제주토박이
제주누리 미등기 토지 연구소
신소장 ☎ 010-7305-7819

칼라강판 조립식 건물 녹슬고 비새는 곳에
우레아
방수전문건설업
석주개발
☎ 782-3644
010-4690-3636

탁월한 선택!
확실한 광고 효과
한라일보 광고문의
750-2828
서귀포지사
732-5552

가족묘지·문중묘지
허가 대행
벌초대행·각종제초작업
묘지관리·묘지보수
방묘·산담·잔디작업
평장·이장· 화장·무연고 전문
가족묘지 & 산소에 새, 억새, 잡풀 죽는 약 보유중
장례지도사 강 봉 호
010-5254-6661
『 진주강씨 제주도종회 이사
사)한국역술인협회 제주지부 이사
관음사 영락원 관리이사 』
하나장의사
616-08-85402